

## 말씀묵상의 힘



<sup>19</sup>보아라 네가 버려져서 썩대밭이 됐고 땅이 폐허가 됐지만 이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땅이 비좁을 것이고 너를 집어삼킨 사람들은 멀리 떠나가 버릴 것이다. <sup>20</sup>얕은 줄로만 알았던 네 자녀들이 네 귀에 대고 말할 것이다. “이곳은 내게 너무 좁습니다. 내가 살 만한 더 넓은 곳을 마련해 주십시오.” <sup>21</sup>그러면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자식을 잃고 더 낳지 못하는 몸이 됐는데 누가 내게 이 아이들을 낳아 주었을까? 포로로 끌려가서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웠을까? 가만 있자, 나만 홀로 살아남았는데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sup>22</sup>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못나라를 향해 손을 펼치고 못백성에게 내 깃발을 들어 신호를 할 것이니 그들이 네 아들들을 양팔에 안고 오며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데려 올 것이다. <sup>23</sup>왕들이 네 양아버지가 되고 왕비들이 네 유모가 될 것이다. 그들이 코를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묻은 흙을 핥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게 될 것이다(사 49:19-23)(우리말성경).

### 본문묵상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건만 하나님의 언약백성의 목적, 곧 하나님 나라 열방의 빛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멀어졌다. 스스로 죄를 선택하므로 저주의 약속이 성

취되며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몰락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된다.

### 개인묵상

버려져 썩대밭이 된 여인은 내 어머니이다. 신

# 버려져 썩대밭 된 여인

윤봉주 | 천만큐티운동본부 사역자, 은누리교회 권사

양의 자유를 찾아 남하했지만 먼저 내려와 있던 아버지에게 이미 다른 여자가 생겼고 어린 자식 빛이 팔린 채 버려진 어머니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나님, 내 집은 파산한 배와 같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배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가장이 없는 집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어린 자식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 어머니의 옆드림은 생사여탈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언약을 따라가는 삶이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높아져가는 아버지는 바벨론이었고 어머니는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이었다. 어린 내 눈에 어머니의 모습은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쪽대밭이 된 폐허였다. 엄마의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을 보며 엄마같이 될까봐 두려웠고, 무능한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무심한 하나님께 마음이 달혀 갔던 어린 시절이 기억난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도망치던 나를 세상 끝에서 만나주셨고 내 친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어머니 추모 5주기를 보내며 어머니의 노년을 되돌아 본다. 평생을 무조건 옆드리시는 무한 신뢰를 하나님은 늘 손잡아 일으키며 높여주셨다. 노년을 부요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어린아이같이 조심스럽게 다루셨다. 백발의 고운 살결로 웃으시는 어머니는 말씀으로 사신 분이요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히 이루셨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함같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 누리 모든 복은 어머니께서 맺으신 하나님과의 언

약을 따르는 삶, 그 절대순종의 삶 때문이다.

어린 내 눈에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삶의 절망, 실패, 어두움을 말씀히 걷어내신 하나님의 시간이 50년 걸렸구나... 그렇다면 나의 남은 삶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나? 어머니가 지금 자손들의 모습을 본다면 이렇게 고백하실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서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웠을까? 가만 있자, 나만 홀로 살아왔는데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진실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 적용기도

인생의 험한 파도에 휩쓸릴 때 말씀으로 찾아 오시는 하나님, 내 어머니의 깨어진 배에 오르셔서 선장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옆드려 자녀들에게 약속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신 어머니를 주심 감사합니다. 저 또한 말씀 앞에 옆드림으로 제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두 아들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나라 물줄기 흘러가며 열방의 빛 하나님의 찬송 되게 하소서. 온 세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땅끝까지 찬송을 받으소서. **샘**